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

장석정*

1. 서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한 권으로 번역된 최초의 한글 성경은 1911년에 출간된 『성경전서』이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성경이니만큼 학자들은 어떤 번역대본(Vorlage)을 사용해서 번역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 특별히 구약학자들은 구약성경 중 특정한 책들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전서』의 번역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번역대본 성경을 추론해 왔다. 김정우는 시편 23편과 110편에 초점을 맞춰서 『시편촬요』(1898)와 『성경전서』(1911), 그리고 『성경개역』(1938)의 대본 문제 등을 다루었다.¹⁾ 필자가 관심을 둔 『성경전서』에 관하여, 그는 이 책이 『시편촬요』에 많이 의존하고는 있으나 독자적으로 더 좋은 우리말을 골라서 번역했으며, 한문 성경을 따르다가 원문에서 이탈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²⁾ 『성경전서』가촬요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영어 성경인 ASV(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를 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았다.³⁾ 또한 이환진은 『성경전서』의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

1)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2) Ibid., 28.

3) Ibid., 29.

번역대본을 찾기 위해 시편과 잠언, 그리고 욥기의 구절들을 비교 분석했다.⁴⁾ 그는 결론적으로 『성경전서』의 번역대본은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1864)과 RV(Revised Version, 1881)로 추정할 수 있으며,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과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에서 빌려 온 용어와 표현도 있다고 보았다.⁵⁾ 이환진은 『성경전서』의 번역 과정은 여러 한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훑어보면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 번역가들이 <브리지만-컬벳슨역>을 우리말로 옮기면, 선교사 번역가들이 RV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본다.⁶⁾ 그러나 이렇게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각 구절마다 그 유래된 번역대본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본 논문은 출애굽기 4:8의 복합적 번역대본의 가능성을 추론해 보면서 이런 측면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성경전서』를 분석하고 비교해 본 후에 특정한 중국어 성경들이 번역 과정에서 참고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왔다. 『성경전서』의 번역자회가 정확히 어떤 중국어 성경들과 그 밖의 성경들을 참고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1911년 이전에 이들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어 성경들은 모두 번역대본 후보로 놓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어 성경들 외에 <신천성서>(1823)와 <대표역본>(1854)도 함께 비교 분석하게 될 것이다.

민영진은 『성경전서』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되지 않고, 한문 번역과 영어 번역들을 대본으로 번역했다고 주장하며, ASV를 기초로 하고 한문 성경을 참고했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김중은의 경우에는 『성경전서』에 대한 특정한 번역대본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각 번역 위원들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 초역을 하고, 회의를 통해 ASV를 기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았다.⁸⁾ 필자도 『성경전서』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원전을 참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다양한 영어 성경들과 중국어 성경들을 참고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4)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5) 이환진에 따르면, 번역 초기에는 한국인 번역가들의 역할이 더 컸고, 후기로 갈수록 선교사들의 역할이 더 컸다. Ibid., 51-52.

6) Ibid., 33.

7) 『성경개역』도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43;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 9, 각주 7에서 재인용.

8) 그러나 김중은은 『성경개역』 시편의 준비 과정에서는 히브리어 원전을 참고해서 작업을 했다고 본다.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심천 김중은 구약학공부문집』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11;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 9, 각주 8에서 재인용.

『성경전서』의 번역자들 중에 한국인 조사들⁹⁾은 일본어 성경도 참고했다.¹⁰⁾ 필자가 지난 논문에서 제안했듯이 출애굽기 4:13의 경우에는 일본어 성경 중에서 <메이지역>(1887)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¹¹⁾ 따라서 번역자들이 번역대본으로 삼았던 성경들 중에 일본어 성경도 반드시 첨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은 우선 선교사들이 영어 대본으로 KJV와 RV를 사용하고, 한국인 조사들은 다양한 중국어 성경들과 일본어 성경인 <메이지역>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경전서』의 번역대본으로 이 세 가지 성경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출애굽기 4:8의 번역대본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번역대본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번역대본에 의존해서 『성경전서』가 번역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대본들의 장점들을 선택하여 결국은 최상의 번역을 창출해 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인 『성경전서』가 적어도 출애굽기 4:8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밝히며, 동시에 이 성경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애굽기 4:8에 대한 히브리어 본문(MT)과 칠십인역(LXX)도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다.

2. MT와 한글 성경들

וְהָיָה אִם-לֹא יֵאֱמָרוּ לָךְ וְלֹא יִשְׁמְעוּ לְקֹל הָאֵת הַרְאִשׁוֹן וְהֵאֱמָרוּ לְקֹל הָאֵת
הַאֲחֵרִין

9) 1900년 『신약전서』 출간 이후, 번역자회와 상임성서실행위원회는 구약 번역에 착수했지만, 번역자들의 개인 사정들과 번역진의 잦은 교체로 인해 1906년까지 번역 작업은 부진했다. 그러나 1907년 봄에 한국인 번역 조사 2명(이창직, 김정삼)을 번역 위원에 임명하여 레널즈(W. D. Reynolds)와 함께 3인 번역자회를 구성했고, 이 두 명의 조사들은 선교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말 번역에 참여하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70, 74-75.

10) 김사요는 『성경전서』(1911)가 아니라, 이것의 개정판인 『성경개역』(1938)이 일본어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창세기 본문들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밝혀 주고 있다. 김사요,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8 (2001), 216-230;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8 (2021), 7-25.

11)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 20-21.

12) 대한성서공회, 『한글성서전사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47, 52.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이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도¹³⁾
나중 이적의 소리는 믿을 것이다.

MT의 4:8을 보면, 우선적으로 “처음”이라고 번역한 רִאשׁוֹן은 ‘연속된 것들 중의 처음/첫째’를 의미한다.¹⁴⁾ 또한 “나중”이라고 번역한 אַחֲרָיו은 ‘나중에 계속되는’의 뜻을 가지며, 『성경전서』가 번역한 것처럼 ‘둘째’라는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¹⁵⁾ 하우트만(C. Houtman)에 따르면, אֵת은 מוֹפֵת(‘놀라움, 경이로움’)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훨씬 다양한 정황 속에서 사용되며 특히 이 구절에서 אֵת은 ‘기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모세를 입증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¹⁶⁾ 『개역개정』(1998)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¹⁾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²⁾표징은 믿으리라
¹⁾ 히,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도 ²⁾ 히, 소리는

MT에 대한 번역을 각주에 넣은 것을 보면 번역자들이 MT와는 다르게 이 구절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처음 표적의 표징”이라는 번역이 MT의 רִאשׁוֹן אֵת הָאֵת לָק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MT를 그대로 번역하면 ‘처음 이적의 소리’라고 해야 하는데, 『개역개정』은 “표징”이라고 번역한 곳에 각주를 달아서 MT에는 “소리”라는 단어가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비록 MT는 לָק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개역개정』은 이 단어 대신에 “표징”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도대체 “소리”라는 단어를 우리말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표징”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시에 ‘이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אֵת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이 단어의 번역에 관해서 우리말 최초의 구약성경 번역 성경인 『성경전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하우트만에 따르면, 출 4:8의 히브리어 본문의 וַיִּשְׁמַע 동사와 אֵת לָק가 함께 사용되면 “듣다” 외에 “유의하다, 주목하다”(pay attention to, take note of)의 뜻이 있다고 본다. C. Houtman, *Exodus*, vol.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59.

14) HALOT, 1168.

15) HALOT, 36.

16) C. Houtman, *Exodus*, 363, 399. 하우트만의 4:8 번역은 다음과 같다. “And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and pay no attention to the first sign, they will believe the second sign.” 그는 주석서에서 לָק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이 구절의 영어 번역에는 לָק을 번역하지 않고 있다.

『성경전서』(1911)	이적
『성경개역』(1938)	이적
『개역한글』(1961)	이적
『개역개정』(1998)	표적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경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적”으로 번역되다가 개역개정에서 갑자기 “표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표적”이라는 번역이 “이적”이라는 단어보다 더 현대적이지도 않고,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적(表迹)’은 “겉으로 드러난 자취”(시각적 단어)를 뜻한다. 반면에 ‘이적(異跡)’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시각적 단어)¹⁷⁾을 의미한다. 또한 ‘표징’(表徵)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시각적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 이어지는 4:9에서도 תִּרְאָ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תִּרְאָה의 복수 형태로서 『개역개정』은 이것을 ‘표적들’로 번역하지 않고 “이적들”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개역개정』은 8절과 9절에서 같은 히브리어 תִּרְאָה에 대해서 “이적”과 “표적”이라는 번역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출애굽기 4:8에서 ‘이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다보니, ‘표적’이라는 단어가 시각적인 “겉으로 드러난 자취”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리’라는 청각적인 단어와는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리’ 대신에 시각적 단어인 “표징”으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시각적인 단어들로 조합을 이루어서 “표적의 표징”으로 번역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표적의 소리’라고 번역하면 시각적 단어와 청각적 단어의 결합이 어색해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개역개정』의 번역은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성경전서』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성경전서』

또 글으샤되 더가 만일 너를 밋지아니호고

처음 이적의 말을 듯지 아니호여도 둘째 이적의 말을 밋으리라

『개역개정』과는 다르게 각주가 달려 있지 않으며, 번역도 크게 차이가

17) 물론 ‘이적’에는 청각적 요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시각적 단어의 특색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MT를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MT의 의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역개정』의 “표적의 표징”이 아닌 “이적의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MT의 קֹל־הַיָּהוָה 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קֹל 은 ‘소리’, ‘사람의 음성’, ‘말’,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선포’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¹⁸⁾ 또한 『개역개정』이 “처음”과 “나중”으로 번역한 것을 “처음”과 “둘째”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성경전서』의 번역은 그 유래가 어떻게 되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LXX가 번역한 출애굽기 4:8

$\epsilon\acute{\alpha}\nu\ \delta\grave{\epsilon}\ \mu\eta\ \pi\iota\sigma\tau\epsilon\upsilon\sigma\omega\sigma\acute{\iota}\ \sigma\omicron\iota\ \mu\eta\delta\grave{\epsilon}\ \epsilon\iota\sigma\alpha\kappa\omicron\upsilon\sigma\omega\sigma\iota\ \tau\eta\varsigma\ \phi\omega\eta\eta\varsigma\ \tau\omicron\upsilon\ \sigma\eta\mu\epsilon\acute{\iota}\omicron\upsilon\ \tau\omicron\upsilon\ \pi\rho\acute{\omega}\tau\omicron\upsilon$

$\pi\iota\sigma\tau\epsilon\upsilon\sigma\omega\sigma\acute{\iota}\ \sigma\omicron\iota\ \tau\eta\varsigma\ \phi\omega\eta\eta\varsigma\ \tau\omicron\upsilon\ \sigma\eta\mu\epsilon\acute{\iota}\omicron\upsilon\ \tau\omicron\upsilon\ \delta\epsilon\upsilon\tau\acute{\epsilon}\rho\omicron\upsilon$.¹⁹⁾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그 처음 이적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둘째 이적의 소리 때문에 너를 믿을 것이다.

LXX는 ‘처음’과 ‘나중’ 대신에 “처음”과 “둘째”(δευτέρου)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 MT와 차이가 나며, 이는 『성경전서』의 번역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이 비록 MT를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LXX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겠다. 이런 가능성은 필자가 이전 논문에서도 4:13을 분석하여 제안했었다.²⁰⁾ 구약학자들 중에도 LXX에 따라서 번역한 학자들이 많은데, 차일즈(B. Childs)²¹⁾, 사르나(N. M. Sarna)²²⁾,

18) HALOT, 1084-1085. 하우트만은 קֹל 은 모든 종류의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 악기 소리, 벨 소리, 천둥소리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קֹל־הַיָּהוָה 는 ‘이적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19) 여기에 인용된 칠십인역의 본문은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LXX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And if they will not believe thee, nor hearken to **the voice** of the **first** sign, they will believe thee [because] of **the voice** of the **second** sign.’ 참고로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에는 $\epsilon\acute{\alpha}\nu\ \delta\grave{\epsilon}\ \mu\eta\ \pi\iota\sigma\tau\epsilon\upsilon\sigma\omega\sigma\acute{\iota}\ \sigma\omicron\iota\ \mu\eta\delta\grave{\epsilon}\ \epsilon\iota\sigma\alpha\kappa\omicron\upsilon\sigma\omega\sigma\iota\ \tau\eta\varsigma\ \phi\omega\eta\eta\varsigma\ \tau\omicron\upsilon\ \sigma\eta\mu\epsilon\acute{\iota}\omicron\upsilon\ \tau\omicron\upsilon\ \pi\rho\acute{\omega}\tau\omicron\upsilon\ \pi\iota\sigma\tau\epsilon\upsilon\sigma\omega\sigma\acute{\iota}\ \sigma\omicron\iota\ \tau\eta\varsigma\ \phi\omega\eta\eta\varsigma\ \tau\omicron\upsilon\ \sigma\eta\mu\epsilon\acute{\iota}\omicron\upsilon\ \tau\omicron\upsilon\ \epsilon\sigma\chi\acute{\alpha}\tau\omicron\upsilon$ 라고 되어 있어서, ‘나중 이적’(the latter sign)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20)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 12-13.

21)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or heed the **first** sign, they may believe the **second**.” 차일즈는 ‘voice’를 번역하지 않고 있다. ‘이적’은 하나님의 사자가 갖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B.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49, 78.

22) “And if they do not believe you or pay heed to the **first** sign, they will believe the **second**.” 사

도즈만(T. Dozeman)²³, 윗슈나이더와 오스왈드(H. Utschneider & W. Oswald)²⁴가 이렇게 번역했다.

『신약전서』의 번역 과정에서, 로스 목사가 그리스어 비평편집본인 팔머(E. Palmer)의 개역 그리스어 성경(Palmer's edition of the Greek)을 원본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리스어 번역 능력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로스역의 번역 원칙은 원천본문으로 영어 번역본이 아니라,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²⁵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에게 LXX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것을 번역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MT처럼 “처음 이적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둘째 이적의 소리는 믿을 것이다”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이적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둘째 이적 때문에 너를 믿을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어서, 8절 전반부의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라는 부분과 잘 상응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적의 소리”는 들어야 하는 대상이고, 믿는 것의 대상은 “너(= 모세)”가 된다는 것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 이 점에 관해서 더 논의하게 될 것이다.

4. 중국어 성경들 번역 분석

(1) <신천성서>(神天聖書)(Morrison's Version, 1823)²⁶

將來或伊不肯信爾、並不肯聽其初號之聲、則伊將信其次號之聲也。

르나는 NJPS의 번역을 그대로 그의 주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적’ 자체가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호와가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라고 본다. N. M. Sarna, *Exodus* (Philadelphia: The Jewish Society Publication, 1991), 21.

23) “And it will be that if they do not believe you and will not listen to the voice of the first sign, they will believe the voice of the second sign.” 도즈만은 이적의 ‘음성’을 모세의 말이라고 봤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의 율법을 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 T. Dozeman, *Exodus*,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7, 139-140.

24) “And if they do not believe you and listen to the voice of the first sign, they will believe the voice of the second sign.” 이들은 ‘이적의 음성’은 모세의 음성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강화시켜 준다고 보았다. H. Utschneider and W. Oswald, *Exodus 1-15*, IECOT (Stuttgart: Kohlhammer, 2015), 118, 127; 프랍(W. H. C. Propp)도 ‘the voice of the sign’은 모세 자신의 음성을 인증해 준다고 보았다. W. H. C. Propp, *Exodus 1-18*, AB (New York: Doubleday, 1999), 182, 210.

25) 대한성서공회, 『한글성서전사회』, 47.

26) <신천성서>(神天聖書)는 원문을 중시하여 번역되었고, <브리지만-컬벗슨역>은 직역을 중시했으며, <대표역본>은 풀이역으로서 학자풍의 스타일을 중시했다. 요우빈,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향화,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275-276.

장래에 어찌면 내가 너를 믿지 않고, 내가 첫째 부호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둘째 부호의 소리는 믿을 것이다.²⁷⁾

중국어 성경들 중에서 유일하게 ㄱ을 聲이라고 번역했다. 또한 “첫째”와 “둘째”에 어울리는 初號와 次號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다.

(2) <대표역본>(代表本)(The Delegates' Version, 委辦譯本, 1854)

耶和華曰、如以色列族、不緣前之異跡信從爾、必為後之異跡信從爾。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민족처럼, 앞의 이적을 믿고 따르지 않은 까닭에, 나중의 이적은 반드시 믿을 것이다.

<대표역본>은 『성경전서』가 번역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생각되는 성경인데, 번역자회의 조선인들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어 성경들 중에 이 성경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聲이나 言과 같은 단어들 사용되지 않았고, 異跡이라는 단어만 사용되어 있어서 ㄱ은 번역되지 않았다.

(3) <브리지만-컬버트슨역>(Bridgman-Culbertson's Version, 裨治文譯, 1864)

曰若彼不信汝不聽前有徵之言必將信後有徵之言

말씀하시길, 만일 그가 너를 믿지 않고, 앞에 있는 징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뒤에 있는 징조의 말은 반드시 믿으리라.

이 중국어 성경이 유일하게 言(=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다. 비록 『성경전서』의 “이적의 말”이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징조의 말’(徵之言)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의 뜻을 가진 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4) <쉐레쉴레브스키 관화역본>(1875)

主說、他們若不聽你、不頭一個證據、必要信第二個證據。

주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그들이 너를 듣지 않고 첫째 증거를 듣지 않으면, 반드시 둘째 증거는 믿을 것이다.²⁸⁾

27) 중국어 성경들의 우리말 번역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구광범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28) 본문에서 모점() 부호는 나열하는 기능이 있어서 聽동사가 계속해서 뒤의 문구인 不頭一個證據에도 영향을 주어서 ‘첫째 증거를 듣지 않으면’으로 번역될 수 있다.

(5)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文理譯, 1902)

主曰、彼若不信爾、不聽前之異蹟、必信後之異蹟、

주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그가/상대방이 너를 믿지 않고, 앞의 이적을 듣지 않으면, 뒤의 이적은 반드시 믿을 것이다.

5. 중국어 성경의 분석 결과

(1) 『성경전서』의 “이적의 말”이 유래된 번역대본으로는 徵之言으로 번역한 <브리지만-꺠벳슨역>이 유력해 보인다. 비록 『성경전서』의 번역자회가 MT를 참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MT의 뜻에 가까운 <브리지만-꺠벳슨역>의 번역을 따른 것은, 번역자회가 참고한 영어 성경(KJV, ASV)이 MT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번역을 하고 있었던 것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대표역본>과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異蹟으로 번역하고,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은 證據로 각각 번역하고 있으나, 정작 히브리어 נִסְאֵם에 해당하는 의미인 ‘소리’ 혹은 ‘말’ 등의 단어들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음’(前)과 ‘나중’(後)으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으나, ‘처음’(初, 一)과 ‘둘째’(次, 二)로 번역한 성경들(<신천성서>,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도 있기 때문에 이는 『성경전서』 번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6. 영어 성경들과의 비교 분석

우선 현대 영어 성경들은 출애굽기 4:8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RSV(1952)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God said, “or heed the first sign, they may believe the latter sign.”
- NJPS(1988) “And if they do not believe you or pay heed to the first sign, they will believe the second.”
- NRSV(1989)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or heed the first sign, they may believe the second sign.
- NET(2001) If they do not believe you or pay attention to the former sign, then they may believe the latter sign.

먼저 여기 나열된 영어 성경들은 모두 **קָוָה**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이나 혹은 ‘소리’ 등의 뉘앙스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 **קָוָה**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조차 각주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NRSV와 NJPS는 “the first”와 “the second”라고 번역함으로써, MT가 아니라, LXX에 따라서 번역하고 있다. RSV와 NET에는 “first”와 “latter”라고 되어 있어서 MT에 따라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두 가지 영어 성경들이 히브리어 본문의 동사인 **שָׁמַע**를 그대로 ‘듣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지 않고, “heed”(NRSV) 혹은 “pay attention to”(ASV)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목적어와 동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처음 이적(시각) + 소리(청각) + 듣지(청각) // 둘째(나중) 이적(시각) + 소리(청각) + 믿을(인지적)²⁹⁾

그런데 여기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각과 청각이 공존하는 표현에 관한 것이다. 즉, “처음 이적”은 시각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시각적인 의미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시각적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말/소리’인 것이다. 이는 청각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단어와 청각적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사뭇 어색한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색한 조합의 표현에 대한 동사가 ‘듣다’라는 청각적 성격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듣다’라는 동사는 결국 시각적 단어인 “이적”보다는 청각적 단어인 ‘말’과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MT의 표현이 시각과 청각의 부자연스러운 조화로 이루어진 ‘이적의 소리/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장 그대로 번역한 것은 다른 아닌 『성경전서』, 즉 우리말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이 MT를 대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했을 KJV, RV, ASV를 보면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하다.

KJV(1611), RV(1881), ASV(1901)

And it shall come to pass, if they will not believe thee, neither hearken to the voice of the first sign, that they will believe the voice of the latter sign.

29) ‘믿는다’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의 범주가 아니라, 인지적 범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영어 성경들은 MT의 표현을 그대로 잘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earken to the voice of the first sign”이라는 번역을 보면 원래 히브리어 동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rst”와 “latter”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즉,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그대로 결합해서(듣다 + 소리 + 처음 이적)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후대의 영어 번역들로 오면서 이런 번역이 의역이 되면서 ‘소리/말’이라는 청각적 단어가 사라지고, ‘이적’이라는 시각적 단어만 남게 되고 그 결과 굳이 ‘듣다’라는 청각적 동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NRSV는 동사 “heed”를 썼고, NJSP는 “pay heed to”를 썼으며, NET는 “pay attention to”를 써서 청각적인 동사가 아닌 동사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서 히브리어 שָׁמַע이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고, 시각적 단어 “sign”이라는 단어와 상응하도록 번역된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이적의 말’이라는 ‘시각 + 청각’의 표현의 의미를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기로 하자. 일단 동사가 ‘듣다’이기 때문에 청각에 상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의 말’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시각적인 대상인 ‘이적’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처음 이적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나중 이적의 소리를 믿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왜 두 경우 모두 ‘듣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결국 이적이라는 것은,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이적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적 속에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둘째 이적의 말은 믿을 것이라는 말이다. 즉 이적의 말은 들어야 하는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믿어야 하는 대상이지 보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시각적인 현상이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LXX의 본문처럼 ‘그 둘째 이적의 소리 때문에 너를 믿을 것이다’라는 내용에서처럼 “둘째 이적의 소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이적의 소리”로 인해서 모세를 믿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적의 소리”를 프랍(W. H. C. Propp)은 ‘모세 자신의 음성’으로 보았고, 윗슈나이더와 오스왈드는 ‘모세의 음성’이라고 해석했으며, 도즈만은 ‘모세의 말’이라고 보았던 것처럼³⁰⁾, “이적의 소리”는 모세의 말이며, 이스라

30) W. H. C. Propp, *Exodus 1-18*, 210; H. Utzschneider and W. Oswald, *Exodus 1-15*, 127; T. Dozeman, *Exodus*, 139-140.

엘은 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이라는 것이 LXX의 본문 내용이다. LXX의 번역대본(Vorlage)이 MT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적의 말’이라는 번역의 유래를 찾으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글자의 번역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의 신학적인 의미도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먼저 번역자들은 ‘이적’은 시각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은 청각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시각 + 청각’의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번역자들이 MT를 참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참고할 수 있었던 번역대본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시각 + 청각’으로 조합된 표현인 ‘이적의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번역자들은 영어 성경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혜롭게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이 출애굽기 4:8의 『성경전서』 번역에 드러나 있다.

물론 영어 성경들이 “the first voice of the sign”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했겠지만, 번역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중국어 성경의 번역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들을 보면 ㄴᄇ을 아예 번역하지 않고 ‘이적’이나 ‘증거’라고만 번역한 성경들도 여러 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전서』는 곳곳하게 “이적의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신학적인 이해(理解)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여호와께서 ‘이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 주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ㄴᄇ을 ‘소리’나 ‘음성’으로 번역하지 않고 ‘말’로 번역한 것은 이적의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시각 + 청각’의 조합이 부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시각적인 현상인 ‘이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번역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은 (1) 비록 MT를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용 가능한 번역 성경들을 두루 참고하고 분석했으며, (2) 출애굽기 4장의 내러티브 흐름에 맞게(“처음”, “둘째”) 번역했고, (3) “이적의 말”이라는 번역을 통해서, 『성경전서』는 이적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번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일본어 성경 <메이지역>(Meiji Version, 1887)³¹⁾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천성서>에는 並不肯聽其初號之聲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리’라는 번역이 있고,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에는 徵之言이라는 번역이 눈에 띈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 당시 중국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이 참조했던 일본어 성경인 <메이지역>(1887)의 번역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エホバいひたまふ彼等もし汝を信ぜずまたその最初の徵の聲に聽從はざるならば後の徵の聲を信ぜん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만약 너를 믿지 않고 또 그 최초의 징조 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는다 해도, 나중의 징조 소리를 믿으리라.³²⁾

그런데 <메이지역> 일본어의 徵이라는 글자는 한국말로 의역하면, ‘징조’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적’의 뜻도 갖고 있다. 따라서 위에 기록한 직역(直譯)대신 이 구절을 우리말로 의역하면, 다음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만약 너를 믿지 않고, 첫 이적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도, 나중 이적의 말을 믿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보면, <메이지역>의 내용은 다름 아닌 1911년의 『성경전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적의 말”로 번역된 부분이 <메이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메이지역>에서 보이는 後(‘나중’)라는 번역 때문에, 『성경전서』의 “둘째”라는 표현은 중국어 성경(‘次’ = <신천성서>와 ‘二’ = <웨레셰브스키 관화역본>)의 영향도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메이지역>에서 사용된 徵の聲이라는 표현은 <브리지만-컬벳슨역>의 徵之言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徵이라는 한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言 대신에 聲을 쓰고 있다. 결국 두 성경들 모두 ‘이적의 말’이라고 번역

31) 코헨(D. B. Cohen)의 책에 따르면, 구약성경 중에서 출애굽기는 헵번(J. C. Hepburn)에 의해서 1884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D. B. Cohen,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rill, 2013), 56.

32) <메이지역>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우원용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전서』의 번역에 준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성경전서』의 “이적의 말” 번역의 신학적 근거

영어 성경의 “voice”를 ‘소리’ 대신 “말”이라고 『성경전서』가 번역하게 된 신학적인 근거를 추론해 보자. ‘이적’이라는 시각적 요소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를 보여 준다. 비록 이적이 시각적 형태로 보이겠지만, 그 이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은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단순히 “이적의 소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의 불일치 면에서 거북한 점이 있지만, 여기에 ‘소리’ 대신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³³⁾ 이렇게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결합된 내용은 여호수아 24:27에도 나온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나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구절에서 “돌”은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돌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시각적 객체인 돌이 말씀을 ‘듣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증거가 되면 나중에 증언을 해야 할 때, 돌이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돌(시각적 요소) + 듣다(청각적 요소)
돌(시각적 요소) + 말하다(청각적 요소)

이렇게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결합은 종종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애굽기 20:18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33) 물론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말/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들리게 된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불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 구절에서도 ‘보다’라는 시각적 동사의 목적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 중에서 “우레”와 “나팔 소리”는 청각적 요소이며, 오직 “번개”와 “산의 연기”만이 시각적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동사인 ‘보다’라는 동사 하나로 청각적 요소의 목적어들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적은 이렇게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동사는 시각적 동사인 ‘보다’만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4:8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적”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적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9. 복합적 번역대본의 가능성

『성경전서』(1911년)가 번역대본으로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들은 다음과 같다.

- (1) 영어 성경: KJV(1611), RV(1881), ASV(1901)
- (2) 중국어 성경: <신천성서>(1823), <대표역본>(1854), <브리지만-컬벗슨역>(1864),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
- (3) 일본어 성경: <메이지역>(1887)
- (4) LXX

첫째, “이적의 말”의 번역에 있어서 『성경전서』는 출애굽기 4:8의 경우에 KJV, RV, ASV 등의 영어 성경들(“the voice of the sign”)을 번역대본으로 하여 번역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 성경(徵之言, <브리지만-컬벗슨역>)과 일본어 성경(徵の聲, <메이지역>)은 4:8의 번역에 있어서 『성경전서』(1911년)가 “이적의 말”로 번역되는 데 부분적으로 역할을 한 듯 보이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들(“the voice of the sign”)과는 voice를 ‘소리’로도 번역할 수 있었는데, 굳이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경전서』의 “처음”과 “둘째”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연대로 보면 『성경전서』보다 훨씬 빠른 1823년에 출간된 <신천성서>(神天聖書)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其初之聲이라는 표현과 其次號之聲라는 표현을 통해서 ‘처음’과 ‘둘째’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에도 一個證據라는 표현과 第二個證據라는 표현을 통해서 ‘처음’과 ‘둘째’의 뜻을 보여 준다. 나머지 중국어 성경들은 前과 後라는 한자어 사용해서 ‘처음’과 ‘나중’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 중에서 “처음”과 “둘째”는 <신천성서>와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본 논문에서 이미 살펴본 LXX 본문이다. 여기에도 ‘처음’과 ‘둘째’(τοῦ δευτέρου)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사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신약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팔머의 그리스어 성경(Palmer’s edition of the Greek)을 참고했었다.³⁴⁾ 따라서 LXX 성경을 이들이 갖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일 갖고 있었다면 번역자들의 그리스어 실력으로 LXX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전서』에 나타난 출애굽기 4:8의 번역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들뿐만 아니라, LXX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애굽기 4:8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대본의 가능성을 추론하는 작업은 어느 하나의 번역대본으로 압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합적 번역대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더 많은 구절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번역대본의 내용을 더 많이 『성경전서』에 반영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이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성경들을 참고하면서 그 성경들 중에서 1911년 당시까지의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번역을 완성하려고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다.

MT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어 성경에 우선적으로 기초한 번역을 하면서도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은 영어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중국어 성경을 참고하여 본문의 흐름에 가장 적합한 번역을 채택했던 것이다. 여기서 **본문의 흐름**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4:8이 포함된 출애굽기 4:1-9의 내러티브의 흐름을 말한다. 즉, 이 내러티브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체험하도록 하신 이적은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지 않으면 예비해 두신 세 번째 이적이 있다. 그것은 나일강 물을

3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67.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총 세 가지의 이적들이 있는 셈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번역보다는 “처음”과 “둘째”라고 번역한 것이 본문의 흐름을 보다 잘 표현한 번역이 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은 동시에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이 MT를 참고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도 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MT를 참고했다면 MT에 ‘처음’과 ‘나중’이라고 기록된 것에 따라서 『성경전서』를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 결론

『성경전서』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대본을 찾는 작업은 우선적으로 번역자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을 이용해서 번역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비록 히브리어 원문은 아니라도 칠십인역 성경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 4:8을 살펴본 결과가 본 논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 구절의 경우에는 가능성 있는 어느 하나의 번역대본 성경의 영향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경들이 부분적으로 번역대본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적 번역대본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성경전서』의 출애굽기 4:8의 번역대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힘든 과제다. 정확하게 중국어 성경 혹은 일본어 성경에서 번역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첫째로 『성경전서』의 번역자회 구성원들이 사용했던 번역대본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선교사들의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번역 능력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번역대본을 찾는 작업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성경전서』의 번역이 유래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히브리어 본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전서』의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와 일치해 보이는 것은 결국 이 히브리어 본문을 잘 반영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성경전서』 번역이 MT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우수한 번역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이적의 말”이라는 번역을 통해서 영어 성경들의 ‘the voice of the sign’을 반영함으로써, 본래 MT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어

성경들이나 일본어 성경들에서 보이는 ‘소리’(聲)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로 번역한 것은 <브리지만-귄벳슨역>(徵之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적이 들려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둘째, MT는 물론이고 영어 성경들과 대부분의 중국어 성경들, 그리고 <메이지역>이 ‘처음’과 ‘나중’으로 번역한 것을, 『성경전서』가 “처음”과 “둘째”로 번역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의 중국어 성경들(<신천성서>와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것처럼, 『성경전서』의 번역대본으로 칠십인역(LXX)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셋째, 이렇게 “둘째”로 번역한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출애굽기 4:1-9의 내러티브의 흐름에 맞춰서 총 세 가지의 이적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과 “둘째”로 번역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가끔 우리는 한글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 번역 성경인지를 잊어버리곤 한다. 특히 구약성경의 경우 히브리어 원문을 볼 수도 없고, 히브리어를 번역할 사람도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번역 성경들을 최대한 참고하고,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사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성경전서』를 번역해 냈다. 어느 하나의 번역대본을 정해서 그것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번역대본들로 사용하면서, 각각의 대본에서 부분적으로 최상의 번역과 표현들을 반영하여,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최적의 번역을 만들어 냈다. 각각의 단어들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번역하려고 애를 썼으며,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비록 청각과 시각이 어울리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도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시각적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이 번역대본으로 참고한 다양한 성경들이 각각의 부분에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구약성경의 한 권의 책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번역대본에 근거해서 번역되었다고 할 수 없듯이, 한 권의 책 안에서 어떤 구절이나 어떤 장(章)이 하나의 번역대본을 채택해서 번역했다고 할 수도 없다. 출애굽기 4:8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그리스어 성경의 영향**이 모두 집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번역대본의 가능성을 넘어서 **복합적 번역대본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각각의 번역대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은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출애굽기 4:8, 이적의 말, 『성경전서』, 복합적 번역대본, 칠십인역.

Exodus 4:8, the voice of the sign, The Korean Bible, combined source text, LXX.

(투고 일자: 2021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사요,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8 (2001), 216-229.
-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심천(深川) 김중은 구약학공부 문집』,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 대한성서공회, 『한글성서전시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요우빈,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향화,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273-291.
-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王大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8 (2021), 7-25.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s, trans., Jerusalem: Magnes, 1967.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Cohen, D. B.,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rill, 2013.
- Dozeman, T., *Exodus*,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 Houtman, C., *Exodus*, vol. 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 Propp, W. H. C., *Exodus 1-18*, AB, New York: Doubleday, 1999.
- Sarna, N. M., *Exodus*, Philadelphia: The Jewish Society Publication, 1991.
- Utzschneider, H. and Oswald, W., *Exodus 1-15*, IECOT, Stuttgart: Kohlhammer, 2015.

<Abstract>

**The Possibility of the Combined Source Texts for
The Korean Bible (1911):
Focused on Exodus 4:8**

Sok-Chung Cha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source texts for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 (『성경전서』, 1911) primarily starts with the premise that the translators used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Bibles as their source texts. Furthermore, I already proposed in the previous article concerning Exodus 4:13 that they might have used the LXX. Therefore, this study aims not only to find the source text for Exodus 4:8 but also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 first Korean Bible was translated under the combined influences from these different translated Bibles and the LXX.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expression of “the word of the sign (이적의 말)” in The Korean Bible reflects “the voice of the sign” in the English Bibles (KJV, RV) which were based upon the MT. In addition, it overcame the temptation of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Bibles that translated קוֹל (“voice”) using the word 聲 and adopted the translation of either Morrison’s Version or Bridgman-Culbertson’s Version. It probably wanted to convey that the sign is not merely a voice but speaks the words of YHWH. This kind of exegetical translation would be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Bible.

Second, where the MT, Chinese, and Japanese Bibles were mostly translated as “the first” and “the latter”, The Korean Bible translated them as “the first” and “the second”. This fact demonstrates that the translators of The Korean Bible in those days might have used the LXX as one of the source texts. Third, the plausible reason for the transl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w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rrative of Exodus 4:1-9 flows according to the three signs that Moses was supposed to perform in front of the people of Israel and Pharaoh.

This study shows that the translators of The Korean Bible did not translate the

biblical text *per se*, but they did it in harmony with the narrative of the biblical text. Therefore, The Korean Bible was translated under the influences of the combined source texts available at the time and in consideration of the flow of the narratives in Exodus 4:1-9. The missionaries and Korean helpers together did a superb job in finishing up the first Korean Bible in 1911.